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해진다. 나는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간다. 마을에서 떨어진 길가 모퉁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하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곳 마을에 사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놀랐다. 그냐? 하며, 반갑게 악수하였다. 자기 이름을 말하며 수줍어한다. 제자 아버지는 허리가 몹시 굽었다. 짧은 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떤 때는, 영화 속의 동학농민군들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군 단체 사진 얼굴처럼 수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의 신념이 얼굴에 스쳐 갈 때도 있었다. 달구지로 나무도 해 나르고 보리도 벼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어른이 어쩐지 좋았다. 제자는 시내버스 운전한다. 정년이 6년 남았다. 내가 아버님을 속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제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다.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우리 집에 한 번 들려라. 아버지 사진이 나온 책이 있다고, 했다.

조금 걸었더니, 다른 제자가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그렇게 된 나의 인생

었다. 나는 저 제자 아들도 가르쳤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를 닮은 아이가 있어서 사진 찍어 준다고 했다니, 길로 쪼르르 뛰어 올라왔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말하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었다. 내가 웃었다. 아이는 2학년이다. 자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네 아버지와 네 큰 형을 가르쳤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했다. 저기, 간다고 했다. 비가 온다고 했냐고 내게 물었다. 모르지만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또 물었다. 우리 이야기하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용은 별로 없다.

오랜만에 2학년 학생과 몸짓 손짓 발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돌이 크게 웃기도 했다. 막힌 데 없이 이어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답소(?)다. 나는 2학년을 20여 년 가르쳤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가보겠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 가냐고 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지, 하며 할아버지는 어디 사냐고 했다. 저기 산다고 우리 마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언제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러다고 하는 아이에게 나, 이제 가도 되냐고 확실하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냐고 또 물었다. 귀여워서 또 사진을 찍었다. 두 손가락을 펴서 브이 자를 만들어 눈에 대고 이어이, 하고 억지로 아이가 진짜로 히히 웃었다. 앞니가 모두 빠졌다. 그때 내가 아버지가 선생님, 그 녀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 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바쁘신 분이요. 그만

보내 드려라. 그럼 간다고 하고 빨리 걸어서 갔다.

돌아오면서 보니, 아이가 아버지 트랙터에 타고 있다가 큰 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창고 만든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이 형이 생각났다. 이 아이 형은 미니 포크레인과 운전할 줄 알았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은 다 하였다. 나는 하교할 때 아이에게 주려고 이따금 아이스케기를 사 들고 가기도 했다. 빈손으로 만난 어느 날 돈도 2천 원 준 기억이 난다. 그럼 나가볼게, 안녕! 근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까 말했어도 또 저기 저쪽 산 아래 있어. 언제 놀러 와, 그랬더니, 큰 소리로 우리 형 알아요. 한다. 내가 형을 가르쳤다고 나도 크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가볼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있어. 날이 어두워졌다. 강둑길 풀밭에 밤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오다가 뒤돌아보았다. 아이가 크게 손을 흔든다.

이 길은 나의 길이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는 이 강물을 거스르고 때로 따르며 승용과 거역을 배우고 자유를 얻는다. 지금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나는 이렇게 이 길에서 하얗게 늙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자다 깼다 새벽이다. 창가에 달이 떠 있어서 놀랐다. 달이 나를 보고 있다. 좋아하였다. 아까 본 아이 생각이 났다. 나는 조각달 오목한 곳을 가만히 베고 잔다. 새는 소쩍새, 밤에 새가 운다. 나는 저 새 소리로 내게 주어진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고개 높고, 다시 잔다.

종교칼럼

말세의 징조와 올바른 신앙



최현열 광주 순교교회 담임목사

나는 2008년 경미한 뇌경색으로 충남대병원에서 십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며칠간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편두통이 가시질 않았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지 못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고통 속에서 2주를 보낸 뒤에야 손에 감각이 떨어지고 왼쪽 팔이 축 늘어지는 증상 때문에 영상의학과에서 뇌경색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 증세가 나타난 날은 쌀쌀한 아침이었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산에 다녀온 뒤부터였다. 그리고 그 전에 3개월 정도 새벽 알람 소리에 깨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다. 이러한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은 혈전을 만들어 내었고 혈관에 조금씩 쌓여온 것이다. 그러다 마침 차가운 새벽 공기에 혈관이 수축되어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던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에 차질 없게 하려고 무척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긴장감이 알람 소리에 별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심장에 무리를 주었던 것이다. 뇌경색이라는 증세가 나타나기 몇 달 전부터 긴 시간을 걸쳐 혈전

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집의 냉장고를 새것으로 교체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오래된 냉장고는 전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다양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셔서 그렇다고 여기며 조금만 더 버텨 주기를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그전과는 많이 달랐다. '그럭그럭'하는 소리였다. 저녁쯤에 집에 오니 냉장고는 그 기능을 상실해 있었다. 냉장이나 냉동기 전혀 되지 않았기에 음식들이 녹아 있었고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리셋 버튼을 눌러보고 전원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포기하고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기사분이 오시더니 모든 중요한 부품들이 다 망가졌고 부품비도 비싸고 수리하느니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사실 사용하지 오래 되기도 하였고 소리로 증상을 알려 주었지만 무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점에서 '1:29: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전조 증상들을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지진과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서해의 지진으로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재난은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전쟁이나 많은 분쟁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신앙인조차도 분별없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 가운데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전쟁처럼 많은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지진처럼 갈라짐과 배척 현상이 있다. 개인주의를 통한 사랑의 식어짐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신앙의 회의감이말로 가장 무서운 말세의 현상이 아닐까 싶다. 이로 인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많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게 된다. 사랑 받음이 느껴지지 않는, 또한 사랑함이 내 속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된다.

기고

무한 허그 쿠폰, 손주 돌보기



강정희 전 국어 교사·다정한 교실에서 20000시간 저자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중인 내 살 뉴뉴는 요즘 의문문에 빠져 있다.
(옛? 나 어디서 왔지? 이젠 송산스님이 주는 화두인가?)
아무래도 잘 모르겠으니, 되묻기로 한다.
"글쎄, 어디서 왔을까?"
"광주에서 왔어요. 그런데 왜 왔어요?"
"엄마 아빠 학교 가니까, 뉴뉴 봐주려고 왔지."
뉴뉴가 갑자기 다가가 기를칠한 듯 빛나는 검은 눈동자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이렇게 눈으로 봐요?"
"I see you"라고 말하는 '히버타'의 나비족이 떠오른다. 퇴임하고 지난 3월부터 손자를 돌보고 있다. 이제 학교 아이들의 명대사 대신 손자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뉴뉴는 무거운 그림책을 다섯 권씩 들고 와 내 무릎에 탁탁탁씩 앉는다. 색채가 곱고 주제도 깊어진 그림책을 읽어주며 나도 잠시 유년으로 돌아간다. 어미 새가 지렁이 한 마리를 물고 아기 새들이 기다리는 동지로 날아가는 그림이 있는 면을 못 넘기게 하더니 말한다.

"그런데 지렁이는 아프잖아."
아파트 단지에 인공 바위로 꾸민 폭포와 분수가 있다. 호수에는 동근 조약돌들이 가득 담겨 있고, 주변에는 키 큰 노송과 정원수가 어우러졌다. 며칠 전 시험가동을 하는지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 서둘러 나왔다. 공중으로 솟구친 물줄기와 맑은 물속을 한참 바라보던 뉴뉴의 첫마디에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돌들도 시원하겠어."
완도 정도리 동돌해변에 가고 싶다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뉴뉴의 말에 나는 물에 잠긴 돌이 되었다. 그림 속 새와 물속 돌맹이에도 감정이입을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면 따라서 두 팔을 벌려 춤을 춘다.
"뉴뉴는 나무예요!"
하늘에 흰 구름이 보송보송, 막 타 놓은 햇살 같은 날이다. 유아차 등받이를 눕혀준다.
"뉴뉴야 하늘에 구름 좀 봐라."
어떤 명화보다 책보다 보여주고 싶은 진경이 아닌가. 그런데 뉴뉴는 작은 두 손을 모아 팔까지 문지르고 있다.
"할머니, 구름이 비누 거품이에요."
지쳐서 퇴근한 엄마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한다.
"엄마 볼은 말랑말랑 썩떡이에요."
영화 '일 포스티노'의 마리오처럼 메타포를 자유자재로 말한다. 네루다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메타포쯤이야 스스로 터득한다.
동백나무 아래 떨어진 붉은 꽃들을 주웠다. 바위 위에 수북이 모아놓고 뉴뉴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다음날 동백꽃 케이크를 보러 간다. 당연히 꽃들은 누렇게 시들어 볼품없이 누워있다.
"할머니, 꽃은 왜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드는 거란다."
"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내 대답은 점점 궁색해져 간다. 곧 동아반복이 되고 말 터이다.
제 엄마나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말하면 우리 입을 유심히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다. 공용 퍼즐을 맞추면서 말한다.
"뉴뉴가 퍼즐 잘해서 할머니가 또 깜짝 놀라겠다."
아기를 키우는 건 부모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선생님의 감탄과 기대다.
겨우 뒤집기를 해서 어린 새가 날개짓 하듯 두 팔을 허우적거리던 녀석이 이제 운동화를 신고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곧 가방을 들고 학원으로 학교로 군대로 직장으로 떠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품에 있다. 동글동글 종아리랑 사과 같은 엉덩이를 맘대로 만져볼 수 있는 무한 쿠폰이 내게 있다. 보들보들 배에 등에 푸푸 간 지렁이를 태우고, 맘껏 안을 수 있는 무한 쿠폰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도 아기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맑은 종종 말한다.
"엄마, 0.7명만 낳아야 하는데, 내가 1명을 낳아 버렸어."
이제 빨간 배낭을 메고 노란색 버스를 타는 아이들, 유아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모두 내 자녀 내 손주로 보여서 문득 불려서 말을 걸고 싶어진다.
"애들아, 조심해. 밥 많이 먹었니? 엄마 휴대폰 말고 나무랑 하늘을 좀 보렴."

社說

쌀·한우값 폭락에도 무대책 정부에 농심 폭발

고물가 속에 유독 쌀값과 한우값만 떨어지려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반해 산지 쌀값과 한우 가격은 소비 대비 과잉 공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워 내다 팔면 14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산지 쌀값(80kg)도 18만 원까지 하락하자 농민들이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며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광주 전남지회 소속 한우농가 2000여 명은 7월 3일 상경 집회에 나선다. 한우농가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전남지역 쌀 재배 농민 500여 명도 7월 4일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 올라간다.

이들이 장외 투쟁에 나선 데는 가격 하락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한우농가의 경우 비육우 600kg 기준으로 볼때 지난 3년 사이 사료값은 22% 오른 반면 소값은 24%나 떨어

져 한 마리당 142만 원의 손실이 나는 구조라 전남에서만 700 농가가 폐업을 선택했다. 쌀값도 마찬가지로 80kg 한 가마 가격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18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매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 추세도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도 전남에서 쌀과 한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쌀 농가는 인구면에서 전국 2위, 경지면적 기준으로 전국 1위이고 한우 농가는 사육 규모로 볼때 경북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전남의 핵심 농정인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을 방지하면 파급 효과로 인해 타 품종도 타격이 크다. 전남도가 나름의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건설사 경기 좀 나쁘다고 돈 풀고 세제 혜택 다 주고, 5%도 안되는 상속세 대상자 세금을 깎는다면서 왜 쌀 농사 짓는 농민이엔 그렇게 인색하냐"는 한 농민의 인터뷰가 가슴을 친다.

'공시'에 내몰린 광주,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공시)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지역만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2일 예정된 광주 지방직공무원 경쟁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광주만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주 토요일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9급 공개 필기시험의 광주지역 경쟁률은 36.9대 1이다. 행정직군은 64.7대 1, 기술직군은 18.1대 1로 집계됐다. 9급 일반 행정은 100.5대 1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지역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호남지역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모두 '수입'을 꼽았고, 광주지역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5.5%)이었다. 광주지역 공무원 채용 인원이 타 지역

보다 적은 것도 원인이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광주는 97명을 모집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두자리 수 모집으로 인원이 가장 적다. 광주시는 2022년 451명을 선발했지만 지난해 117명으로 줄어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률도 2022년 17.0대 1, 지난해 39.4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당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휴직자들이 많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공시에 내몰리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취준생들이 공무원만 선호한다면 국가 전체의 인재 배분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공시열풍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실업은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순수 창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즉 '흉내내기'를 우리는 모방이라고 한다.

17~18세기 프랑스에서는 가발이 패션 소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가발을 헤어 스타일을 바꾸는 패션 용품으로 사용하지만 실은 대머리를 가리기 위한 행동을 따라한 것이 패션으로까지 발전한 사례이다. 루이 13세는 격투에 시달리던데 왕후인 '앤'의 바람기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20대 초반에 머리털이 모두 빠졌다. 루이 13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 루이 13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 루이 13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 루이 13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

따라하기

모방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동양에서는 맹목적으로 흉내내는 모방을 비꼬는 사자어로 '서시호빈'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는 기복상 심장질환이 있었던 듯 하다. 그녀는 가슴의 통증 탓에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는 표정을 자주 지었다. 그러나 경국지사의 미모인지라, 그 찌푸림마저 색다른 매력으로 사람들 눈에 비쳤다. 서시가 사는 마을에 아주 추하게 생긴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서시처럼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다녔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질투했다는 얘기가.

1세대 벤처사업가로 최근 별세한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은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515억원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쾌척하면서 "이 돈을 모방하는데 쓰지 말라. 미래 국민을 먹여 살릴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모방의 한계는 명확하다. R&D분야가 선진국을 모방하지 않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 확대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

/채희중 논설실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